



보도자료

담당

조우성 선임연구원

cho.woo.sung@ydi.or.kr

연락처

전화 : (02) 6288-0563

팩스 : (02) 6288-0558

보도일시

2021. 2. 17 (수) 13:00부터

배포일시

2021. 2. 17 (수) 13:00

여언, ‘공교육 학력저하 실태분석과 대안’ 담은 <여언정책연구>집 발간

○ 학력저하 문제 갈수록 심화, 방치시 공교육 붕괴 우려 선진교육 시스템 전환 절실

- 과도된 수업혁신정책과 교사전문성 몰락 등이 학력저하 배경, 기초학력 보장체계 구축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부진 선점시스템 개발 등 대안 모색 절실
- 지상욱 연구원장, ‘학력저하 방치하면 공교육 추락 불가피, 4차산업혁명 주도할 교육정책 전환에 대한 정부 관심 촉구’

○ 여의도연구원(원장 지상욱)이 정책연구보고서 ‘여언정책연구’집을 발간했습니다. 2021년 1호입니다. 송미나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 회장이 갈수록 심화하는 ‘공교육 학력저하 실태를 분석하고 대응방안’을 집중 조명했습니다.

- 2018년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(PISA: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)이 OECD 회원국 학생(15세)을 상대로 실시한 기초학력(수학·과학·읽기·문제해결력) 평가 결과, 우리나라 학생 가운데 15%가 ‘최하등급’ 을 받았습니다. 2009년 7%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한 비율입니다. 송 회장은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 지난 1년간 학력저하 문제는 더 심화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.

- 기초학력 저하 비율이 늘어난 이유는 많습니다. 송 회장은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. △ 수업혁신정책(시스템)의 실패 △ 교사의 수업 전문성 해체와 몰락 △교육과정보다 슬로건 중심으로 운영되는 수업현장이 학력저하 배경입니다.

- 대안도 집중 조명했습니다. 송 회장은 처방보다 예방, 조기개입을 강조했습니다. 구체적으로 △기초기본교육 활성화 △AI 활용 학습 부진 조기 진단 시스템 구축 △기초학력 보장체계 구축 △수석교사제 활성화 △교육청의 복지정책과 교육정책 분리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○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‘학력저하로 수업에서 소외되는 학생은 자존감이 떨어져 건전한 인격형성은 물론 정서적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, 특히 교실수업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’ 며 정부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습니다.

※ 첨부 : 여언정책연구(IB 2021-01) 파일